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KBS사보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Vol. 715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 잡으며 화려한 피날레!

지난해 12월 첫 방송을 시작해 시청자들을 웃고 울게 한 〈트롯 전국체전〉이 뜨거웠던 레이스를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 20일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높은 시청률 속 화제 또한 끊이지 않았던 두 달 반의 여정은 모두 끝났지만 〈트롯 전국체전〉은 앞으로도 스페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트롯 전국체전〉 금메달의 영광은 진해성에게

〈트롯 전국체전〉이 지난 20일 자체 최고 시청률 19.0%(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최종 경연은 1차 트로트 신곡 미션과 2차 트로트 명곡 미션에 대한 전문가 판정단의 점수와 시청자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메달의 주인을 가려냈다. 그 결과 금메달은 진해성이, 은메달은 재하가, 동메달은 오유진이 각각 수상했는데, 금·은·동메달의 주인공이 발표되는 순간은 분당 최고 시청률 20.9%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입증했다.

방송 내내 주말 밤 뜨거운 관심 속 화제의 중심

〈트롯 전국체전〉은 지난해 12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화제의 중심이었다. 주말 심야 방송시간에도 불구하고 16.5%(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말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에 등극했다. 이후 방송에서도 주말 지상파 예능 부문 시청률 1위 자리를 줄곧 지켜나갔다. 이러한 화제성과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준결승 무대부터는 기존 밤 10시 30분에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밤 9시 15분대로 방송시간을 앞당기기도 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트롯 전국체전〉의 열풍은 계속된다

긴 여정을 마친 〈트롯 전국체전〉은 앞으로도 비하인드 스토리와 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해 그 감동과 여운을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2월 27일과 3월 6일 2주간 방송될 〈트롯 전국외전〉은 〈트롯 전국체전〉의 미공개 영상과 메이킹 영상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참가선수들의 숨겨진 매력을 선물할 계획이다. 3월 13일과 20일에는 〈트롯 전국체전 – 스페셜 갈라쇼〉를 마련해 금메달리스트를 비롯 TOP 8인과 감독, 코치 등이 출연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급 콜라보 무대를 선보이게 된다.

환경스페셜 8년 만에 시청자 곁으로 돌아오다!



〈환경스페셜〉 프리젠터 **배우 김효진**

한층 업그레이드된 영상과 구성

새롭게 단장한 〈환경스페셜〉은 가뭄과 홍수, 산불 등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와 메르스, 코로나19 등 창궐하는 질병으로 지구촌이 위기에 빠진 지금, 다시 한번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무엇보다 영상은 더욱 고화질인 UHD로 바뀌었고, 배우 김효진 씨가 프리젠터로 나서는 등 기존 〈환경스페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또한 환경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V-log 형식으로 담아낸 것도 기존과는 다른 점이다. 첫 방송은 3월 4일(목)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아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게 된다.

I·N·T·E·R·V·I·E·W

기존 〈환경스페셜〉과의 차별점은?

지난 8년간 미디어 환경이나 스토리텔링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환경스페셜〉을 리부팅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환경 이슈에 천착한 사람들을 프로그램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환경전문가들을 20초, 30초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등장시키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스페셜〉에서는 1인칭 V-log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이나 환경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몸담아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10년 이상 한 분야에 몰두해온 환경전문가들이 각자 분야에서 V-log 기법을 적극 활용해 더욱 친숙하게 시청자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침몰선의 부활'이라는 아이템을 바다에서 촬영 중인데, 김가람 PD는 이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직접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고 해양 생태 전문가들과 함께 잠수를 하며 V-log도 기록하며 프로그램 제작을 했습니다. 〈환경스페셜〉을 취재하는 PD들의 시선과 성찰도 적극적으로 담아 시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자연의 경고를 귀담아듣고, 위기에 처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 전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환경스페셜〉에서 프리젠터의 역할은?



협력제작국 시사교양2
이성범 팀장

우선 새롭게 부활한 〈환경스페셜〉은 시청자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프리젠터가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인 에코셀러브리티 김효진 씨가 MC를 맡아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가 직면한 환경적 문제를 알리고, 우리의 자연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배우 김효진 씨는 오래전부터 유기견 문제, 제로 웨이스트 등 환경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왔으며 채식주의를 통해 생활 속에서 환경적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어른들이 누려왔던 이 아름다운 지구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환경스페셜〉의 기획 취지에 깊게 공감하여 참여 의사를 기꺼이 밝혔습니다. 김효진 씨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자연의 편에서', '미래세대의 편에서' 지구의 환경문제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 첫 방송 3월 4일(목) 저녁 8시 30분 KBS2

KBS 새 프로그램

바보 온달과 울보 평강공주는 잊어라! KBS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새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지난 15일 첫 방송부터 시청률 9.4%(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며 전작인 〈암행어사〉의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강공주 설화 속 인물들을 소환한 퓨전 사극 로맨스로 빠른 스토리 전개와 감각적인 연출, 배우들의 열연 등이 시너지를 내며 시청자들을 열광케 하고 있는 〈달이 뜨는 강〉의 인기 요인을 분석해봤다.

'사극 요정' 김소현의 귀환… 1인 2역 변화무쌍 연기로 '인생 캐릭터' 갱신 예고!

〈달이 뜨는 강〉의 초반 흥행몰이 일등 공신은 단연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으로 1인 2역을 능숙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김소현이다. 그동안 김소현은 〈조선 로코 – 녹두전〉을 비롯해 〈해를 품은 달〉 등을 통해 '사극 요정'으로 불릴 만큼 연기력을 인정받아왔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고구려 공주 평강이자 살수(암살자) 염가진 1인 2역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여기에 비폭력주의자 온달 역의 지수를 비롯해 순노부 족장 온협 역으로 특별출연한 강하늘의 존재감 역시 빛을 발하며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빼어난 영상미 + 디테일한 연출력 + 다채로운 캐릭터 연기 열전… 기대감 UP!

〈태왕사신기〉 등 굵직한 사극을 통해 연출력을 인정받은 윤상호 PD와 드라마 〈99억의 여자〉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등에서 섬세한 필력을 선보여온 한지훈 작가가 함께한 작품이라는 것 또한 앞으로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 이 둘의 의기투합은 첫 방송부터 웅장한 스케일의 액션과 치열한 정치 싸움의 스토리 등에서 오는 숨 막히는 몰입감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평강과 온달의 로맨스가 본격화되고 평강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해모용(최유화 분), 고건(이지훈 분) 등 주변 인물들의 스토리가 더해져 더욱더 흥미로워질 것이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 그래서 〈달이 뜨는 강〉과 함께 한다면 월·화요일 밤은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

▶ 매주 월~화요일 밤 9시 30분 KBS2



내가 나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



20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찾아와 "당신은 잘살고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서 시작한 새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가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자들로부터 '셀프 힐링 청정 드라마'라는 입소문을 타고 있다.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는 꿈도 희망도 없이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지쳐 살아가고 있던 37살 반하니(최강희 분) 앞에 꿈 많던 학창 시절 17살의 반하니(이레 분)가 찾아와 자신을 위로하고 이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해가는 판타지 로맨틱 드라마다. 주인공 반하니(최강희 분)의 화려했던 과거와 씁쓸한 현재 상황이 극적 대비를 통해 흥미진진한 전개를 이어가는 중. 특히 주인공을 맡은 최강희는 첫 방송부터 짠내나는 생활밀착형 연기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화장기 없는 주근깨 가득한 얼굴과 전매특허 감성 연기를 통해 또 하나의 '최강희 표 캐릭터'를 탄생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반하니를 중심으로 아버지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쫓겨난 재벌 2세 한유현(김영광 분), 그리고 왕년에 잘나갔던 톱스타 안소니(음문석 분)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얽히고설킨 인연의 실타래가 조금씩 드러날 예정이어서 이들이 펼칠 삼각 로맨스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주 수~목요일 밤 9시 30분 KBS2



"내 편이 되어주는 찐팬과 함께하는 힐링 같은 휴식" 수미산장

〈수미산장〉은 지친 일상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쉼'이 필요한 스타들에게 '쉼터'와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하면서 복잡했던 마음과 고민을 비워낼 수 있도록 '힐링'을 선사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수미산장〉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힐링 맛집 〈수미산장〉으로 초대합니다!

〈수미산장〉의 안방마님은 배우 김수미 씨가 맡았다. 명불허전!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그녀는 맛있는 음식 대접은 물론이고 요리 솜씨 못지않은 입담으로 출연자들과 그들의 찐팬들을 무장해제 시켜 솔직한 마음속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신공을 발휘할 예정. 개그맨 박명수는 산장의 집사 겸 '군기반장' 역을, 가수 전진은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은 '공식 돌쇠' 역을, 가수 정은지와 하니는 모든 손님과 끈끈한 케미를 만들어내는 '공감 요정' 역을 맡아 산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하루 동안의 진정한 '쉼'을 선사하게 된다. 지난 18일 첫 방송에서는 팔방미인 배우 구혜선이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진솔한 모습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제작진은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고민을 털어놓는 자극적 토크쇼가 아닌 김수미 표 '힐링 손맛'을 통해 출연자들 스스로 고민을 비울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청자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수미산장〉은 KBS 2TV와 SKY 채널을 통해 매주 목요일 밤 만나볼 수 있다.

▶ 매주 목요일 밤 10시 40분 KBS2



연재 기획 수신료현실화 Q&A ❹

수신료현실화가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데, KBS는 어떤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 국가기간방송,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

방송법 제43조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44조에 KBS가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1)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2)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3)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 연구·개발
(4)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개발·방송

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는 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재난상황과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무도 맡겼습니다. KBS는 보도본부 내에 〈재난방송센터〉를 신설해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을 가동하고 매일 4~7회의 코로나19 관련 특보와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해 왔습니다. 2020년 여름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연이은 대형 태풍 상황에서는 재난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새벽 시간대까지 실시간 특보를 전하는 등 역대 최장(5,600분)의 재난방송을 실시해 '재난극복 중심채널'로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 장애인·해외동포 등을 위한 방송, 무료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문화 발전 선도

KBS는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과 북한 및 북방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민족방송〉, 해외동포 및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방송 〈KBS WORLD TV·라디오〉를 운영하며 사회통합과 민족동질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과 채널선택권 보장을 위한 난시청 해소사업과 방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자연적 난시청을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그 밖에도 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UHD방송 전환 등 미래방송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방송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KBS국악관현악단 운영과 KBS교향악단 지원, 한국어연구 등 방송문화발전과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투자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신뢰도·영향력 1위의 공영방송

이러한 책무수행과 함께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확고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익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국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KBS는 2019년, 2020년 연속 다른 방송사, 신문사, 온라인 매체 등과 압도적인 차이로 영향력,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KBS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는 2020년 2분기, 4분기에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등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뢰도 평가 결과 1위 실적〉
▶ 2015년 시사저널 여론조사 신뢰도 1위
▶ 2016년 시사IN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
▶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 조사〉 매체신뢰도 1위
▶ 2020년 2분기, 4분기 〈KBS 미디어 신뢰도 조사〉 전 부문 1위
▶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 조사〉 매체신뢰도 1위

〈영향력 평가 결과 1위 실적〉
▶ 2015년 시사저널 여론조사 영향력 1위
▶ 2016년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여론조사 영향력 1위
▶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 조사〉 매체영향력 1위
▶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 조사〉 매체영향력 1위

〈프로그램품질평가(PSI), 시청자평가(KI), 프로그램만족도(SI), 품질평가(QI) 1위 실적〉
▶ 프로그램품질평가(PSI) : 최근 10년 KBS1, KBS2가 압도적 1, 2위 고수
▶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KI)조사 : 2016, 2017, 2018, 2019년 KBS1 1위
▶ 방통위 프로그램만족도(SI), 품질평가(QI) : 2016, 2017, 2018, 2019년 KBS1 1위

■ 상업적 이윤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공영방송이 해야 할 공적책무

KBS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책무는 국민들의 삶에 너무도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 역할이 당연시되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일들입니다. 아울러 이런 책무들은 이윤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그 어떤 상업 미디어들도 떠맡을 이유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에 공적책무를 맡기고, 수신료를 통해 그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적 매체들과는 차별화된 위치에서 국민 누구나가 '공익'의 가치를 최대한 누리도록 하는 일, 그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존립 목적인 것입니다. KBS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N·T·E·R·V·I·E·W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연결하는 '한민족방송'

한민족방송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는 특히 북방 동포들이 큰 관심을 갖는 이벤트 가운데 하나다. 최근 사할린 동포신문인 '새고려신문'에는 입상자 관련 기사와 한민족방송부장의 기고문이 크게 실렸을 정도. 전 세계 750만 한민족 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는 KBS 한민족방송에 대해 궁금한 점을 신원섭 부장에게 들어 보았다.



한민족방송부 **신원섭 부장**

Q 한민족방송에 대해 소개해 달라.

A 한민족방송은 2개의 채널로 하루 38시간 송출하고 있는데, 북한, 중국, 동유럽, 동북아시아, 일본,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175개국 750만 동포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국내외 시사, 정보, 교양, 문화, 오락, 라디오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로 전 세계 한민족 동포들이 '한민족' 이름으로 하나가 되도록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한민족방송의 공적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대부분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자긍심 강화를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동포들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유명 가수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해 공개방송을 펼치는 '한민족 큰잔치' 등이 있고, 또 수용자의 미디어 다양화 트렌드를 반영해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통일 열차〉 등의 전통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고, 특히 최근 정규 편성한 〈말 트고 마음 트고〉는 해외 동포들과 탈북민들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됐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제작비와 사업비는 국고 지원을 받지만, 인건비과 방송 시설, 장비 등 우리 공사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KBS의 공영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Q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전'이 사할린 현지 신문에 소개되었는데…

A 제가 기고한 '새고려신문'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발행되는 사할린 지역 신문인데, 동포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정보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해줘서 저희로서는 고마운 신문입니다. 사할린에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분들과 그 후손들이 많은데, 동포분들의 가슴속에는 역사의 질곡과 아픔이 더 깊이 패어 있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아픔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에 관심과 참여로 힘을 보태준 사할린 동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고하게 됐습니다.

Q 기억에 남는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전 작품은?

A 고려인분들의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작품들에는, 한글 배우기에 열악한 환경과 그럼에도 애쓰는 노력들이 도드라져 표현돼 있습니다. 한민족상을 수상한 박승의 님의 〈기라후토로 팔려간 이쁜 고모〉에는 강제징용, 속임수로 당한 인신매매 등 우리 민족의 어두운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 우리 얼을 지키려는 노력은 전 세계 한민족 모두 같겠지만, 역사의 아픔을 더 힘겹게 겪은 사할린 동포들의 우리말 사랑은 유난히 애틋합니다. 사할린을 포함해 CIS 지역 동포들을 위한 '한민족상'을 신설해서 2020년에 두 분께 시상했습니다.

Q 앞으로 한민족방송의 계획은?

A 한민족방송은 연간 30여 편의 특집과 매일 38시간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해외 동포들의 기대를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성과도 커서, 황형선PD가 지난해 12월에 만든 특집 다큐멘터리 〈북한이탈주민 심리치유 프로젝트 – 다시 날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민족방송은 지역과 역사에 따라 차이나는 동포분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또 모든 한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위안부 문제, 통일, K-POP 같은 공통의 주제도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누그러져 동포들 계신 곳으로 어서 달려가 한바탕 '한민족 큰잔치'를 벌이고 싶습니다.

KBS, 코로나19 일상 속 언론 이용·신뢰도 1위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에서 KBS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언론사'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KBS

KBS가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신뢰'하는 언론사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정보를 습득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언론사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서 1~3순위를 합산해 상위 15개 사를 추린 결과 KBS는 34.2% 응답을 얻어 MBC(25.9%), YTN(25.2%), JTBC(23%), SBS(19.6%), 연합뉴스TV(19.3%), 조선일보(10.7%), TV조선(8.8%) 등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KBS는 코로나19 정보를 습득할 때 가장 많이 신뢰하는 언론사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30.6%의 선택을 받아 1위를 차지했는데 MBC(24.9%), YTN(22.5%), JTBC(21.1%), SBS(17.5%), 연합뉴스TV(15%), 조선일보(9.6%), TV조선(7.5%)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KBS를 가장 많이 신뢰하고 선택한 것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을 중심으로 지속해온 KBS의 특보 체제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KBS는 재난재해 주관방송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는 언론재단이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으며, 지난 2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전문은 언론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언론재단이 ㈜마켓링크에 의뢰해 2020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 조사(PC, 모바일)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다.

KBS-CMG, 미디어 협력 MOU 체결



KBS와 중국 차이나미디어그룹(China Media Group, CMG)이 포스트 코로나19 미디어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MOU를 지난 22일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한·중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화상회의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승동 사장과 CMG 선하이슝 사장은 적절한 시기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 줄 것을 상호 요청하며 이번 협력 협정을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KBS,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전달



KBS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결과, 204억 6,715만 원의 성금이 모여졌다. 5만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한 이번 모금액은 전년도보다 47억 8,129만 원 늘어난 액수다. 이번 모금은 ARS, 문자, 계좌이체, KBS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성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다. 한편 양승동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29일 KBS 임직원들이 별도로 모은 성금 2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바 있다.

'KBS국민패널', 설문 참여 사례비 기부해 환아 지원

KBS공영미디어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KBS국민패널'의 사례비 기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도우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KBS국민패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참가자 2,736명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참여 사례비 519만 원을 지원 대상에 대한 투표를 거쳐 '치료가 시급한 아동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총투표 16,437명 중 41.7%가 선택)에 기탁하였으며, 이는 아동 2명의 의료비로 지원되었다. 'KBS국민패널'은 2013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국민패널 사례비 기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KBS국민패널

수신료에 보답하는 '2021 시청자 감사음악회'가 찾아갑니다



KBS가 수신료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2021 시청자 감사음악회'를 마련했다. KBS교향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이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KBS홀과 KBS아트홀에서 매월 무료공연을 선보인다(총 20회). KBS국악관현악단은 지난 24일 KBS아트홀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관객들에게 첫 공연을 선사했으며, KBS교향악단 첫 공연은 오는 27일 오후 5시 KBS홀에서 무관중으로 KBS한국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으로 공연 관람은 오는 3월 1일부터 KBS홈페이지 내 '이벤트·방청'(event.kbs.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KBS진주-함양군,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협약 체결

KBS진주방송국과 경남 함양군이 지난 15일 지역홍보 및 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익적 미디어 교육 제공과 함양군민의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방송 콘텐츠 발굴에 협력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주권 보장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진주방송국은 KBS의 공적책무 수행 확대를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의 미디어 교육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BS사회봉사단, KF94 마스크 11만여 장 나눔 해외 봉사



KBS사회봉사단(이하 '사회봉사단')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마스크 11만여 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사회봉사단의 마스크 나눔 봉사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국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마스크를 제작, 구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사연을 알게 된 마스크 제조회사 ㈜청정마스크에서 지난해 연말 KF94 11만 2천 장의 마스크(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를 사회봉사단에 무상기부 했으며, 기증받은 마스크는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몽고, 러시아 등의 장애인·보육·노숙자 시설과 독립후손들에게 전달됐다. 사회봉사단 이정호 단장(시청자서비스부)은 "한국의 품질 좋은 마스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더불어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구 분	부 문	작품명	수상자
제12회 2020 한국방송기자대상	기획보도	〈시사기획 창 – 코로나 19 요양병원, 감시받지 못한 약물〉	홍혜림, 왕인흡
	경제보도	〈시사기획 창 – 회장님의 상속법〉	서재희, 김태석
	영상취재	〈시사기획창 – 코로나19 최전선의 기록〉	최재혁, 정형철
	지역기획보도	KBS광주 〈농산물 가격의 비밀, 도매시장의 수상한 거래〉	윤주성, 김효신, 이승준, 신한비
제52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	홍혜림, 왕인흡, 우한솔, 전현우
	지역 기획보도	KBS광주 〈'농민 없는' 농업법인… 특혜로 키운 불법 온상〉	김효신, 유승용, 이승준, 신한비
제11회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상	경제	〈시사기획 창 – 론스타 17년, 원죄와 면죄부〉	최문호, 송명희, 석혜원, 안용습, 김재현
	지역	KBS창원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소멸의 땅〉	이형관, 이하우
제251회 이달의 PD상	TV 시사교양	〈다큐인사이트 – 아임뚜렛〉	구상모, 이유리(작가)
	라디오	〈조우종의 FM 대행진〉	이충언, 권소희, 장승이(작가)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양승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828, 2821
편집인 김현석 **취재** 안현기 기현정 나은정 최재영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박수연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